

#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 詩로 드러내고 싶어”

### 광주 출신 김은우 시인 시집 '귀는 눈을 감았다' 펴내 99년 '시와 사람'으로 등단...4년만에 새 시집 발간 광양서 지역 시인들과 '시몽' 동인 결성 창작 활동



김은우 시인

시인은 시집을 펴내는 것을 밀린 숙제를 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깊은 내면의 몸짓”일 터였다.

서 겪는 의롭지 않은 일들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일 겉니다.”

광주 출신 김은우 시인. 이번에 4년 만에 세 번째 시집 '귀는 눈을 감았다' (시산책)를 펴냈다. 지난 1999년 '시와 사람'으로 등단을 하고, 거의 10여 년만인 2008년도에 첫 시집을 냈다. 이후 8년이 지난 2016년에 두 번째 시집을 내고, 4년만인 올해 또 하나의 작품집을 들고 독자들과 곁으로 돌아왔다. 시집 중간 소식을 전해오는 시인의 목소리는 담담하면서도 차분했다. 현재 광양에 거주하는 터라, 전화를 통해 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현재 시인은 광양에 거주하고 있다. 광주에서 태어나 한때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IMF를 전후해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광양으로 내려가게 됐다. 실의에 빠져 아무것도 손이 잡히지 않은 데다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은둔 생활을” 할 정도였다. 시인은 아침 일찍 뒷산에 오르며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쓸쓸하고 슬픈 것들을 소재로 독자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나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을 응시하고, 나아가 이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로 만들고 싶었죠.”

“사람들은 아픈 가운데 좋은 글이 나온다면 위로 아닌 위로를 보냈습니다. 많이 아파 모든 걸 체념하며 통증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받아들였죠.”

시인은 자연 감성과 서정성을 토대로 부패한 삶의 현장을 직시한다. 코로나로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특유의 예리한 축수로 들여다 본다. 어찌보면 시인이라 함은 감수할 속의 토끼와도 같은 존재다. 소설 '25시'를 쓴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는 토끼가 감수할 속의 위기를 알리듯, 문인은 글을 통해 세상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첫 시집을 내자 지인들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아마도 몸도 아프고 생활도 여유가 없어 혹여 “시를 놔버리지 않겠나”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끝까지 시를 놓지 않았다. 풀무가 쇠를 단련하듯, 고통은 창작의 열정을 지피는 기제가 되는 법이다.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창작에 몰입했다. 광양과 순천에서 활동하는 시인들끼리 '시몽'이라는 동인을 결성하고 활동을 이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 번째 시집까지 낸 지금은 “마음을 비워두는지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한다.

김은우 시인의 이번 시집의 제목 '눈을 감았다'는 다분히 사회비판적인 사유가 담겨 있다. 모더니즘적인 감수성과 표현으로 묘사한 시들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며 지쳐 간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울음의 빛깔”이라는 작품에서도 시인의 음성울 수 있다.

“제가 시를 대륙 그 자체입니다.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성을 지닌 대상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도착하게 될 길의 시작이며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의 울음빛깔을 귀로 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뭇잎을 귀로 은유한 것인데, 4계절을 겪으며 낙엽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우리네 인생도 자연현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살면서 겪는

시인은 천성적으로 유약한 기질을 타고 난 듯했다. “유년 시절 외로움도 많이 봤다”는 말에서 혼자만의 자기세계를 만들어가는 소녀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 들길을 걷거나 나무를 깎는다”는 구절이

“여고 시절 ‘여학생’이라는 잡지에 일기문을 투고했는데 그게 실리면서 막연히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논픽션 공모에 응

답 상상을 다해 쓴 글을 두고했던 적도 있어요.”

문학의 열정은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한때는 등단을 위해 광주 문학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고인이 된 조태일 시인의 수업이 기억이 남는다.

“쉬는 시간에 제 시가 광주일보 신춘문에 최종심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제 시를 기억하시더니 당선작으로 밀었다며 웃더라고요. 현대 다른 심사위원이 다른 작품을 고수하는 바람에 당선되지 못했더라면,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인은 앞으로도 꾸준한 창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점차 시를 멀리하는 세태이지만, 쉽게 잊히며 감동을 주는 작품을 쓸 계획이다. “인간을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시만큼 중요한 장르도 없다는 생각이다.

“제가 시란 대륙 그 자체입니다.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성을 지닌 대상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도착하게 될 길의 시작이며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심훈문학대상에 소설가 정지아·장류진

### 수상작 '검은 방'·'도쿄의 마야'



정지아 작가

장류진 작가

올해 심훈문학대상 수상자로 정지아 작가와 장류진 작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각각 '검은 방', '도쿄의 마야'이며 상금은 1000만원.

심훈문학대상은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독립운동가였던 심훈(1901~1936)의 실천적 작가 정신을 잇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지금까지 조정래, 신경림, 황석영 등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인들이 수상했다.

정 작가의 '검은 방'은 지리산에 입산했던 남부군의 이야기를 다뤘다. 현재 99세인 노파가 42세에 생긴 딸을 '등불'로 여기며 살아가는 내용이다. 삶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랐음을 실감한 노파가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서사가 전개된다.

구례 출신인 정 작가는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장편 '빨치산의 딸'을 출간했다.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등을 받았다.

장 작가의 '도쿄의 마야'는 나와 재일교포 경구형에 관한 이야기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도쿄 여

행을 가고 그곳에서 대학시절 가까이 지냈던 경구형과 그의 아내 마야를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장 작가는 동국대 국문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2018년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창비신인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했으며, 2020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7일 충남 당진시 심훈문학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시립극단 갑질·인격모독 엄중 조치”

### 시 인권 음부즈맨에 조사 요청

광주문예회관(관장 성현출)은 최근 광주시립극단 내에서 불거진 갑질과 인격모독 등의 피해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문예회관 성현출 관장은 지난 11일 “지난 19일 광주시 인권 음부즈맨에 조사를 요청, 21일부터 시립극단 내 갑질 및 성희롱, 폭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립예술단 사업추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비를 통해 개선하겠다”며 “시립예술단 전체에 대해 인권,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고 성범죄 관련 예방 교

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시립극단 조연 등 직원 4명은 “회관 측이 공연과 관련해 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무대 감독이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을 앞둔 여배우에게 ‘살을 뺏어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갑질과 인격모독,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시립극단 또 다른 직원 단원과 스태프는 직원 단원 등 4명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확인서를 회관 측에 제출했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본인들(피해)을 호소하는 직원 단원 4명)이 가진 불만과 주장만을 가지고 다수가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 주장이 날조되고 확대됐다고 반박했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 젊은 지역작가 발굴 '신세계미술제' 자격·시상 확대

손봉채·김상연·김영태·신호운·이이남·이인성·이정록·임남진·정은학·하루.K...

신세계미술제는 젊고 역량 있는 지역 작가의 발굴 및 창작지원을 통한 지역 미술문화 결연을 위해 지난 1996년 '신세계미술제 -주체공모전'으로 출발했다. 이후 제5회부터 '광주신세계미술제 창작지원 공모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신이거나 현재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을 지원해왔다. 2010년 제12회부터는 신진작가상을 신설했으며 지금까지 미술제를 통해 선발된 작가는 86명에 이른다.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역문화와 미술계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올해

제21회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미술의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을 응모 자격과 시상 내용 등에 변화를 준다.

소재지인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도의 작가 발굴에 더욱 집중하고, 특히 신진작가 지원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이거나 해당 지역 출신인 작가들에게 응모자격이 열려 있으며, 기존 '대상' 수상작가의 상금 1000만원을 유지하는 한편 '신진작가상'의 상금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정 조건 역시 만35세로 확대했다.

또 기존 우수상을 폐지하는 대신 대상과 신진작가상 수상작가들에게 개인전 개최 시점에 창작지



제20회 신세계미술제 대상 양나희 작 '별의 시'

원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 최종 수상작가들에 대한 창작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거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들에게 수상 5년 후 재응모도 가능하게 했다.

21회 작품 공모는 14일부터 9월28일까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부산국제영화제 2주 연기·규모 대폭 축소

### 10월 21~30일 개최

다음 달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일정을 2주 연기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열기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1일 임시 총회를 열고 10월 7~16일 예정했던 영화제를 같은 달 21~30일로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석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영화제는 설명했다.

또 개폐막식과 레드카펫은 물론 많은 관객이 모일 수 있는 무대 인사, 오픈 토크 등의 야외 행사와 소규모 모임을 진행하지 않는다.

해외 관계자도 초청하지 않으며 영화인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열었던 리셉션과 파티도 모두 취소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비프 포럼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영화제는 그 밖의 부대 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영화의전당 한 곳에서 영화 상영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연기된 개최 일정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거나 격상될 경우 영화제 개최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영화제는 올해 25회째를 맞아 정상적인 오프라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며 우려가 제기됐다.

영화제 측은 오는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작은 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웅추해신삼계탕</b></p> <p>북구 저불로93(웅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p><b>매산철거·삼보소개소</b></p> <p>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텝, 특수시공,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 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잠·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p><b>대연건설</b></p>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강·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p><b>머리해요(미용실)</b></p> <p>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입 개업할인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닉50,000원 셋팅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p>
<p><b>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b></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앱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b>명품웃수선전문점</b></p> <p>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분위 ☎ 010-2474-1457</p>	<p><b>보광세탁소</b></p> <p>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p><b>새서림 떡방앗간</b></p> <p>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p>
<p><b>동양철학원</b></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b>약초당건강원</b></p> <p>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경어즙·땀발증·침·뜸·포도즙 각종고급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p>	<p><b>인철(仁喆)익스프레스</b></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b>일번지식당</b></p> <p>나주시 영산포로284(구.영산포역도로변) 흑염소탕, 뚝배기, 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뚝배기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p>
<p><b>고전방</b></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b>우리식당</b></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b>신신예술의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b>어주민물장어탕</b></p>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82번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p>
<p><b>광호익스프레스</b></p> <p>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사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p>	<p><b>석당화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b>the 사라헤어</b></p> <p>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p>	<p><b>초대화랑</b></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b>명품크리닝전문점</b></p> <p>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커트·운동화·가방·캐비닛·염색·복합·수선일체 주인 직접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p>	<p><b>박당화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